

매튜슨 성경 강의 이야기 6 - 요한 계시록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의 줄거리에 관한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는 일반서신서를 다루고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강의에서처럼 그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 성전, 땅, 왕권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전개할 것입니다.

자, 데이브 매튜슨 박사님입니다. 이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 서신의 몇 가지 참고 문헌까지 신약성경의 나머지 서신 전반에 걸쳐 이야기의 다섯 가지 주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것은 우리가 바울서신이나 복음서에서 했던 것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한 예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일반서신은 일반적으로 저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제 또는 이야기와 그 다섯 가지 주제가 가정되거나 일반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표면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저자는 글을 쓰는 목적이나 해결하려는 요구에 따라 주제나 이야기의 다양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이야기의 일부인 이 다섯 가지 주요 주제가 일반서신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계시록의 최종 비전에서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이야기의 피날레와 아직 없음과 이미 이루어진 것의 완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정점에 도달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서신으로 알려진 내용이나 현재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곳 중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과 9절과 10절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과 9장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서 나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에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임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언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를 말했고, 다른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주제 중 하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공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언약의 언어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실제로 예레미야 31장의 언어를 채택하여 이제 그 언약이 다음과 같은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구약의 희생.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시작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이 있으며 8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예레미야 31장을 상당히 확장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서로 가르치지 아니하며
 서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리라

나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 용서의 주제. 그리고 마지막
 절은 17절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13절에서는 새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낱아지게 하시고 낱고 낱아지는 것은 곧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은 옛 언약이
 대체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자는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늘 성전에서
 봉사하는 새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시작을 분명히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이제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제정하신다는 주제를
 가정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전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언급되는 곳마다 바울처럼
 성령이 언급되는 곳마다 새 언약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에스겔 37장의 성령은 새 언약의 선물이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수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제를 성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는 새 언약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는 다음은 왕권이나 다윗의 통치라는 주제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아니면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왕실 또는 다윗의 시편인 시편 2장과 다윗의 언약 공식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1장의 첫 두 구절, 특히 3절에서 이미 예상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정확한 각인, 아마도 형상을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의 언어.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실 때에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높은 곳에 위엄이 계시니라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되 다윗 왕의 부왕의 약속을

이루시는 자로 분명하게 보이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지만, 시편 2편, 110편의 성취와 궁극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에 대한 의도를 성취하여 온 창조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미 1장에서 창조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2장과 5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본 시편인 시편 8장에서 상당히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어딘가에서 증언하신 이가 있으니 곧 시편 8편의 저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당신께서는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주석에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들에게 복종시키시니 아무 것도 그들의 통제 밖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니 이제는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8편을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시편 8편은 분명히 창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최초의 창조에 관한 시편입니다. 이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편이 창조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 궁극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될 때를 기대하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과정에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그분은 10절에 “만물이 위하여 있고 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이신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시편 8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섭정인 왕에 대한 다윗의 약속의 성취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시편 8편과 같은 본문을 통해 그것을 창조와 다시 연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려던 우리의 뜻, 우리의 운명이 이제 우리 믿음과 구원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또 다른 본문, 즉 현재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왕권에 관해 명확하게 말하는 이미 읽은 본문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과 9절과 1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라. 왕국이나 왕족, 거룩한 나라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과 궁극적으로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왕국이자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예수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와 연결하거나 통치라는 주제와 연결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다른 텍스트가 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장에 도달할 때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2.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새 언약, 다윗 왕으로 표현된 왕권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대리자, 또한 온 땅을 다스리는 데까지 전파될 하나님의 백성들아.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 성전 언어나 성전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4, 5절, 특히 4, 5, 6절도 4, 5, 6절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리는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과 다른 신약의 저자들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성전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회복된 성전을 발견할 수 있는지입니다. 별도의

구조가 아닌 사람들 자체.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돌이신 그에게로 나아오나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너희 자신이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성전, 영적인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희생은 구약의 동물 희생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순종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친구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그의 육체를 통하여 휘장을 열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행하지 않고 우리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이 언어가 다시 성전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언어, 제사장의 언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뿌려지고 깨끗한 물로

씻겨지는 언어,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성전의 언어와 공명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백성을 가지시고, 언약관계에 들어가시려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 왕권은 구약의 약속과 시편의 성취로 하늘에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 왕과 함께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왕권이며 이 통치에 참여합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그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장막 성전 거처는 이제 별도의 물리적 구조가 아닌 참된 성전인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땅과 창조이다.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땅,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장소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 그러나 결국에는 새로운 창조의 회복을

약속하는 주제, 그 모든 언어 마찬가지로 자랍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본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상속지 유형의 이미지를 다시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나니 곧 창조의 말이요 새 창조의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창조의 시작이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거듭남과 부활이라는 새 창조 언어뿐만 아니라 상속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속, 즉 하늘의 상속은 하늘의 상속을 상속받겠다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로 보입니다. 땅. 땅이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시작된 구원의 축복과 새 창조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1장, 창조 땅 주제나 좀 더 새로운 창조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는 요한1서 2장과 절입니다. 17.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멸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재물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래의 유혹과 자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여기서 우리는 창조의 주제를 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은 여기서 새 창조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현 땅의 창조 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현 세상은 새 창조의 시작과 성취를 기대하며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과 18절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본문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1장 18절, “...그의 뜻을 이루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의 창조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한 부분에 새로운 탄생, 열매, 창조의 언어가 결합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나는 제임스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지금 맺게 될 열매 맺는 열매를 언급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야고보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 창조는 야고보서 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따르면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른 어떤 본문보다, 적어도 일반서신에서, 그 본문은 땅과 창조의 주제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전체를 읽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히브리서의 문학적 풍경에 점을 찍는 경고 중 하나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자는 독자들,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즉, 그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독자들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그는 독자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헤매던 조상들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과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구원의 안식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그가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것을 구약과 연결하는지 주목하십시오. 4장 2절에 보면, “복음이 1세기 히브리서 독자들의 저자인 우리에게도 이르렀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에게도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독자들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3장과 4장을 읽으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 분명히 연결됩니다.

10절, 다시 안식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수고도 그치고. 그러므로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화살을 찢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피조물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심문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다 벌거벗은 채 벌거벗은 채 서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안식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안식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예리하다는 언급이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음이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은, 이 안식에 미치지 못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안식, 곧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안식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저자가 인용한 시편 95편이 있는데, 아직 안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만약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안식을 주었다면 비록 그것이 안식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였다면 왜 하나님은 훨씬 나중에 시편 95편에서 여전히 안식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히브리서 4장과 5장, 3장과 4장에서 제공하시는 구원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안식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단지 예표되고 예표되었던 안식의 궁극적인 성취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가 어떻게 창조 때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창 3, 4장.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 갔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노하여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였나니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비록 그의 일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에 끝났으나 어떤 곳에는 일곱째 날을 가리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따라서 저자가 이것을 어떻게 창조 이야기와 다시 연결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적어도 여기에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식, 즉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구원을 봅니다. 약속의 땅의 성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백성이 누릴 안식,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과 4장의 원래 창조와 관련된 안식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구약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 최초의 창조, 이스라엘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일반서신의 결론을 보면, 일반서신도 때때로 명시적으로 표면화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표면 바로 아래에 이 이야기와 땅과 창조, 성전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왕권, 다윗의 왕권, 통치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 전체에 걸쳐 바울의 서신, 심지어 복음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매우 짧고 급하게 살펴 본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에서 우리는 강조점은 주로 다음 사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측면, 즉 이야기의 시작 측면이 있지만 바울 서신과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이미 또는 아직 차원,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차원에 대한 많은 힌트가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합당한 것을 찾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이 이야기의 완성을 가장 자세하게 표현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다. 여기가 피날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실상 모든 다섯 가지 주제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다섯 가지 주제 모두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절정과 결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 계속 등장하고 서로 얽혀 있는 이야기의 모든 실마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모든 영광과 충만함으로 함께 모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묵시적인 비전.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한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예언서, 그리고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비추어 그것을 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마지막 성취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이 마지막 비전은 어떤 면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창세기 1장과 2장의 백성을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그의 나라로 선택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본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서 성취되고, 이제 그 궁극적인 표현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발견됩니다. 이전 구약 본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일부 특징.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언급하는데, 이는 다시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결혼하여 언약 관계를 맺은 여인으로 자주 언급되어 언약 문제를 제기한다.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9절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황소를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이미지,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구약의 결혼 이미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창세기 21장과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구속사를 지금 한곳에 모으는 것은 바로 이 도시입니다. 다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가 보는 것에 대한 상징적 묘사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징과 이미지는 구약성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도시를 봅니다. 나는 이것이 요한이 보는 것이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주로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건물과 성전 이미지가 사람들을 가리키는 초기 신약성서 본문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이 본 이 도시는 주로 사람들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전케 된 사람 자신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보지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새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온전케 되고 완결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요한의 환상에서 함께 모이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연속성을 분명히 봅니다. 그 주제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나라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 됨이라. 열방은 빛으로 걸을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곳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되었으며, 이제 모든 민족이 그 빛에 응답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언약의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중심에 있거나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님의 언약의 주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요한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그의 백성 곧 인류 가운데 있느니라.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성경 본문의 실제 인용과 가장 가까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공식이 없이 이렇게 된 것은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에스겔서 37장과 27절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언약의 공식과 아주 아주 유사하다. 새 언약의 공식,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언약이 이미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완결되고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절정의 성취에 이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쉬운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은 땅과 창조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21장 1절은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것은 분명히 이사야서 65장의 거의 그대로이며, 하늘과 땅을 언급하는 새 창조 본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요한은 이사야 65장의 성취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어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 땅을 창조합니다. 이제 요한은 새로운 창조를 봅니다.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뒷부분 7절에서는 새 창조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일종의 권고적인 결론으로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그 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과 연결되는 상속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것? 이 새 창조와 새 언약은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상속받지 않고 새 창조를 상속받습니다. 창조의 목표와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 그 자체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 창조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요한이 이 마지막 장에서 구상하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궁극적인 절정과 표현을 찾습니다. 계시록의.

하지만 요한이 이사야서 65장뿐만 아니라 원래의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2장, 즉 22장의 처음 두 장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요한이 이사야서의 공통된 특징인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묵시적인 환상은 초자연적인 천사적 존재가 그 사람을 일종의 환상 여행으로 데려가는 것이었고, 이제 천사가 그를 데리고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시내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내게 보이니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느니라. 이제 새 창조의 모든 특징을 주목하세요. 실제로 그것들은 에스겔 47장을 통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 부분은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에스겔의 환상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에스겔 47장을 모델로 한 것이지만 에스겔 47장 자체는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고 요한 자신도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에게는 없는 생명나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합니다. 에스겔은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요한만이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창세기 2장에 대한 분명한 암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 창세기 2장의 동산에서 흐르는 물의 개념, 그리고 모든 열매 맺는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은 다음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새 창조를 에덴으로의 복귀로 상상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땅은 적합한 환경, 축복과 생명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에덴과 같은 조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약간은 제쳐두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새로운 창조와 땅 모티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없는 21장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이사야서 65장 성취로 없어졌음이라. 이사야서 65장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요한이 이것을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바다와 바다를 좋아하는 내 아내를 포함하여 일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새로운 창조에도 바다가 있을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John이 이 이미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다른 구약성경 본문과 일치하며 요한이 닮은 묵시문학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종종 악과 혼돈을 상징하거나 상징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요한은 단순히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 혼란스럽고 악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모든 것이 이제 제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우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다는

없어지므로 바다도 없어지고 새 창조의 환난과 혼돈과 악도 없어졌으므로 다시 있지 아니하니 환난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과 고통도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라 21장 4절.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요한은 그 외에도 또 다른 주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에 들어가는 데 위협과 방해가 되는 물이 있습니까? 출애굽. 사실 새 출애굽이라는 주제와 가장 분명하게 공감하는 것은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수역이 사라지고 물이 마르는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는 이사야 5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9절과 10절에서 깨어나십시오.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팔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입으라, 옛날과 같이, 옛날 대대에 출애굽하실 때와 같이 깨어나소서. 라합을 쳐서 쪼개고 용을 꿰뚫은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큰 깊음의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게 하신 이가 당신이 아니시니까?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바다와 혼돈의 짐승 형상인 라합과 용의 연결이다. 묵시록 문학이나 다른 문학에서는 혼돈과 악의 장소인 바다를 짐승이나 용형이나 짐승형, 뱀형의 인물과 연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 51장의 타르곰, 구약의 아람어 의역, 이사야 51장의 타르곰에서는 라합과 용을 바로로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1장에서 저자는 출애굽과 바다가 사라지고 마르는 것을 용과 라합과 관련된 혼돈과 악의 장소로 결합시켰는데, 이 용형, 뱀형, 짐승형 인물이다. .
 그러므로 첫 번째 출애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악과 혼돈의 위협을 제거하심으로써 악과 혼돈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들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새 창조로 여겨졌습니다. 계승.

이제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출애굽의 주제를 집어 들고 같은 방식으로 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사야 51장과 다른 장에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기대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본문,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을 누리는 데 장벽을 형성하는 혼돈과 악, 고난과 환난의 홍해를 다시 한번 말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인 새 창조인 그들의 기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분은 그것을 제거하십니다(21장 7절). 그리고 여기서도 요한이 본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분명히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창조, 출애굽, 하나님의 설립을 통해 이어지는 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로운 창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나머지 두 주제인 성전 주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다소 분명하지만 요한은 이에 대해 매우 다른 일을 합니다. 성전의 성취와 건립은 이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새 언약과 관련하여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새 언약의 언어를 얻는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 언약을 하나님의 거처와 연결시킵니다. 이제 요한도 이와 같이 말하되 내가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장막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하더라. 그것은 거처를 취한다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거처를 취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3절은 새로워진 성전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성취하여 그의 성전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방송합니다(에스겔 40-48장). 이제 요한은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묵시록에서 공통점은 모두 구약의 예언적 비전과 일치하여 물리적 성전의 회복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언서와도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의 일반적인 그리스-로마 건축 양식과 도시의 배치에도 의견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마침내 21장과 22절에서 그 도시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도시에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살던 도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이 실현하고 상징했던 것, 일종의 에덴동산의 축소형이자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전체를 의도하신 것을 보여주는 스냅샷이었던 성전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악이 제거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으니, 원래 성전이 필요했던 것, 곧 죄와 악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상이 없어졌으니, 이제 거기 있느니라. 더 이상 별도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환상이나 미래에 대한 다른 묵시적인 환상과 달리, 전통적인 그리스-로마 도시에서 발견한 것과는 달리 이제 요한은 별도의 성전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별도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와 악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이상으로 흥미롭게도 성전의 이미지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의 성전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성전이 있습니다. 요한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성전 이미지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주로 회복된 성전을 묘사하는 데 전념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John은 그것을 도시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측량되는 것은 에스겔서처럼 성전이 아니라 성읍 자체입니다. 우리가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던 도시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백성인 도시 전체는 이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웅장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즉, 요한은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말한 것, 즉 백성 자체가 성전이며 백성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최종적인 형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건축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은 완성된 백성 성전, 백성 성전, 도시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성취로 본다. 에덴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뜻.

사실, 이곳이 사원임을 암시하는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금이 몇 번이나 기능을 수행하는지 주목하세요. 여러분은 정금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18절에 나오는 성은 정금입니다.

황금의 거리가 있습니다. 금은 구약 성전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이어서 열왕기상 5-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나 금은 다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은 에덴동산에서 발견되는 귀금속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이 금으로 빛난다는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임을 암시합니다.

21장과 16절에 보면 그 성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도시는 Foursquare에 있습니다. 길이는 너비와 같습니다.

그 언어는 지성소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축학적 특징은 아니지만, 열왕기상에 나오는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반복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큐브 모양이에요. 이제 도시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묘사함으로써 성전의 모든 이미지가 이제 하나님의 도시에 적용됩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보석은 이제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 존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죄로 인해 좌절되고 파멸된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성전의 건립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 창조에서도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마지막 주제인 왕권과 통치는 22장과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 도시-슬래시-성전, 사람-도시-슬래시-성전-슬래시 새 창조에 대한 마지막 설명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으되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에게 경배하리라 왕권과 통치권의 이미지인 보좌를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 “다시 밤이 없겠노라 거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의 빛이 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창세기 1장과 2장,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영광으로 땅을 가득 채울 것이며,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고 모든 창조물에 그분의 통치를 전파하는 것처럼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은 새 창조 안에서 영원히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를 긴 이야기의 끝, 즉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모든 창조물을 다루시는 구속의 긴 이야기의 정점으로 이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을 백성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환경을 창조하시고, 축복의 장소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인 그들의 명령은 그들이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 피조물 전체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실패하여 하나님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 의도를 어떻게 성취하시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한 그의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피조물에 전파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야기, 때로는 중단과 시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안에서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거하시고 성막의 임재로 거하시는 것으로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분의 백성과 함께 새 언약 관계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새 땅, 새 창조 안에서 인류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